The
따뜻하게

생각나는
그사람

D

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이진석 교수
전문분야. 척추질환, 디스크,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요통

긍정의 힘을 보여준 위대한 그녀,

최민희님!

코스모스

최민희

척박한 길을 장식한다.
노을에 황혼 빛으로 쓸쓸함이 묻어온다.
가느다란 몸과 가녀린 얼굴로
낯선 바람이 이끄는 대로 춤추고 있다.

누가 볼까, 파란 하늘만 바라보며
한 잎 한 잎 그리움을 새긴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짧은 생이 끝나기 전에
내 님을 만날 수 있을까?

※ 힘든 상황에서도 최민희님은 시 쓰기를 좋아합니다.
최민희님의 자작시 중 한편을 소개합니다.

2005년 5월 화창한 봄날. 본래 뇌성마비가 있어 걸음이 불편하고 생활이 힘들었던 28세 여자분이 내과에서 의뢰되었다. 약 2년 전부터 점차 팔, 다리의 힘이 떨어지더니 반 년 전부터는 전혀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목통증이 심했다. 검사 결과 목이 거북목 모양으로 앞으로 구부러져서 목뼈 안에 있는 척수신경이 눌려 있었고, 사지마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목 신경이 많이 상한 상태여서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28세로 젊은 나이지만 체격이 마르고 근력이 약해서 큰 수술을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그래도 그녀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었다. 경제 형편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버지 또한 긍정적인 분이셨고, 무엇보다도 의료진을 믿어주었다. 환자는 12시간에 걸쳐 진행된 힘든 목 수술을 잘 버텨 주었다. 어려운 중환자실 치료를 일주일 넘게 마치고 병실에서 재활치료를 하면서도 항상 웃고 있었다.

4번의 큰 수술과 10번 이상의 입원

3년 후 등과 허리가 옆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측만증이 생겼다. 뇌성마비로 근육의 힘이 약해 등, 허리 측만증이 점점 더 심해져 더이상 제대로 앉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대로 두면 더욱 생활하기 어려워 질 것이 자명했다. 또 다시 12시간이 넘게 척추유합술을 받았다. 수술 후 폐렴 등 여러 합병증이 생겨 중환자실에서 또 다시 일주일 가까이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더 이상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약한 체력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빨랐고, 수술 후 약 2주가 지나고 휠체어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됐다. 이런 큰 수술을 두 차례나 견뎌내고, 여러 합병증을 이겨내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나는 그저 놀랍고, 고마울 뿐이었다. 이후에도 그녀는 목 수술과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지만, 그 역시 잘 견뎌냈다. 10년간 4번의 큰 수술과 10번이 넘는 입원생활과 합병증을 견뎌낸 최민희님. 오늘도 전동 휠체어를 혼자서 운전하며, 여전히 웃는 얼굴로 다가온다. "저에게 당신 같은 소중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